



일도2동의 꿈

■ 발행처 : 일도2동주민자치위원회
■ 발행인 : 김두경 ■ 편집인 : 임일순
■ 발행일 : 2019년 4월 1일
■ 편집디자인 : 고려인쇄
■ (우) 632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28(일도2동)
■ 전화 : (064)728-1529 ■ 팩스 : (064)723-0823

임시정부수립100주년 · 3·1운동 100주년기념

제주역사문화기행 『동성·돌하르방길을 따라가는 시간여행』



김 두 경
주민자치위원장

지난 3월 2일 일도2동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단법인 질토레비의 협조 속에, 일도2동주민자치위원 · 동직원 포함 39명이 동성 · 돌하르방 길을 따라가는 제주원도심역사문화기행을 다녀왔다.

원래 제주의 주성(州城)인 제주읍성은 산지천과 한천이라는 자연 해자를 경계로 하여 현재의 제주성지 안쪽을 성안(城內)이라 했다.

제주에는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특히 을묘왜변(1955년)을 겪으면서, 제주성 내부는 저지대인데 반하여, 성 동쪽은 높은 구릉으로 둘러싸여 성내가 완전히 적에게 노출되는 약점을 드러냈고, 거의 모든 식수원이 성 밖 산지천 유역에 있어 장기전일 때는 식수문제로 곤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주성(州城)의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관측 목사는 을묘왜란 10년 뒤인 1565년에 제주성을 동쪽으로 확장하여 동성(東城)을 쌓았다.

당시의 동성(東城)은 지금의 북성교(北城橋) 동안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상청, 동문파출소, 운주당 남쪽, 소래기동산을 거쳐 남수각 동안으로 이어진 성곽이었다고 추정된다.

제주성은 1925년 제주항 축항공사가 시작되면서 헐리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우리는 이 동성 길을 따라 걸으면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마음으로 우리 선인들이 왜 동성을 필요로 했고, 동성 주변에는 어떠한 문화 유적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선인들의 삶을 느껴보려 했다.



오전 10시에 행사 참가자 39명이 모였고,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서 재직하였던 문영택 질토레비 이사장이 해설을 시작했다.

일도2동 동지(洞誌)에도 소개된 자연사박물관 돌하르방 설명을 필두로 하여 삼성혈 돌하르방 설명을 마치고, 한라산 호국신으로 알려진 광양당(廣壤堂) 제사터에 도착했다.

'전설에 의하면 고려시대 송나라 호종단이 제주의 지맥을 누르고 떠날 때 노한 한라산신이 매로 변하여 거센 파도를 일으켜 호종단의 배를 침몰시켰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한라산 호국신을 광양왕으로 봉하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이를 철폐시켰으나 뒤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라는 표석과 설명이 석화되어 있었다.

최근에 복원된 제이각(制夷閣)에 오르니 제주시 동부지역이 훤히 들어온다.

청풍대라는 다른 이름이 말해주듯이, 예전의 제주 최고 절경들이 상상 속에서나마 눈에 아른거린다.

최근 장초석 등 주춧돌이 발견된 운주당 터에 이르니, 운주당은 복원 중이었다.

운주당이란 조선시대 제주성지의 부속건물인 장대(將臺)이며, 평상시에는 성의 관리와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전쟁시 장군의 지휘소로 사용했던 누각이라 한다.

원래 운주당은 관아의 건물이었으나 후에는 마을 수호신을 모신 일도동 본향당으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월 고희범 시장님이 일도2동을 연두방문 했을 때 내가 제안한 제이각 옆 창고 건물의 매입과 운주당 터의 복원에 대한 건의가 새롭다.

운주당 터도 2016년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한다하니, 오래지 않아 복원된 운주당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옛날 동문이 있었던 연상루지를 지나고 기상청에 올라 공신정(拱辰亭)과 달관대(達觀臺) 및 해산대(海山臺)의 설명을 듣고, '1736년 김정 목사가 이 공신정 입구에 서당을 창설하고 제주의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경내에 산지천 급고천 감액천 등 세 샘이 있어 삼천서당(三泉書堂)이라 이름하였다'는 삼천서당 터 표석을 뒤로하고, 고서흥 공민장이 이룬 공덕동산을 지나서 금산공원으로 향한다.

바다에 남떠러지를 이루어 우뚝 뻗은 이 언덕에는 제주 특유의 난대림이 우거져 오랫동안 입산이 통제되면서 금산(禁山)이란 이름이 생겨 났단다.

바로 앞에는 은혜로운 빛으로 다시 태어난(恩光衍世) 김만덕 할망 기념관과 객주 터가 있다.

객주 터 바로 위에는 돌하르방(제주민속자료제2호)보다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동자복(제주민속자료제1호)이 있다.

탐라, 타라, 탐모라, 주호 등의 이름으로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로 하나의 독립왕국을 영위했던 탐라왕국이 1002년, 1007년 두 번의 화산 폭발로, 탐라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것이다.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책무를 진 탐라왕국의 지배층이 1011년 고려조정을 찾아가 주군(州郡)의 예에 따라 주기를 달라고 요청하여 고려의 탐라현으로 예속하고, 불력을 통하여 국난극복에 나서고 있는 고려의 정책이 더욱 필요했으리라 여겨진다.

동복신미륵은 오랫동안 개인주택 뒤뜰에 방치되다가 2010년 경 제주시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소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옛것은 헐고 몽개버리고, 넓고 크게만 지어야 발전이라는 생각뿐인 현재의 관공서에서 한 일 치고는 칭찬 받을 만하다.

오늘 역사속의 제주 원도심을 걸으면서 내 마음의 울림이 참으로 크다.

제주시에 50년을 살면서, 바로 제주의 유물 유적 옆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과거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 내 상념을 잡는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제 며칠 후면 4.3이다.

우리의 역사에서 4.3이라는 어둡고 감추고 싶은 과거를 현재에 끄집어내어 반면교사로 삼았더라면 5.18이라는 흑역사도 없었으리라.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4.3평화공원이라도 방문하여 향 하나라도 피워서, 억울한 영혼의 천도를 빌어 봄이 옳지 않을까?

(참고 : 2018. 일도2동지(洞誌))



지면소개

- 1면 _ 제주역사문화기행 『동성 · 돌하르방길을 따라가는 시간여행』 · 김두경
2면 _ 오피니언 두 분의 어머니: 신자와 죽은 자 · 양길현 / 기고_둘레 불을 놓다 · 김현경 3면 _ 관내학교 이모저모
4면 _ 자생단체 일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도2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 강창근 / 기고_인간도장 잃어버리셨나요? · 양윤주
5면 _ 문화에 빠지다 / 기고_배움에는 끝이 없다! 김희정 / 주민자치위원회 생생중계실 6면 _ 사람과 사람들
7면 _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들꽃 노루귀, 쫄면호석 · 고재민 8면 _ 알림

오피니언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두 분의 어머니: 산자와 죽은 자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어머니는 헌신과 희생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어머니 없는 가족을 생각할 수 없고, 또 가족 행복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치부해 왔다. 그래서 누구든 문득 어머니를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고마움과 죄송함이 겹쳐서 더욱 그렇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머니는 영원한 정서적 지주이다.

요 며칠 필자는 2분의 어머니를 언론 기사를 통해 만났다. 한 분은 중앙일보 12월 18일자 기사에서였고, 다른 한 분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어머니이다. 한 분은 자식에게 살해된 어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아들 시신을 보며 오열하는 어머니이다.

우선 중앙일보 기사 제목에서 보면, 자식에 살해된 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였다.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를 한다”는 꾸지람을 들었다고 분개한 아들이 아마도 순간적인 비정상적 심신상실로 욕 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살해 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는 게 일반이지만, 존속살해는 더욱 그래서 징역 20년을 받았다.

다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며 아들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

고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한지, 의아심이 들었다. 후자의 어머니라면 그렇게 쉽게 30대 아들의 뺨을 때릴 수 있는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만약 후자의 어머니가 진심이라면, 존속살인의 아들 형량을 확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렸으면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아들의 폭행으로 죽어가면서도 ‘도망가라’고 힘겹게 말하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자식 사랑 마음을 떠올리면서 눈물이 핑 돌 뿐이다.

죽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평생 살아있는 아들에게 본인이 살해한 어머니는 어떤 의미와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것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재판관도, 기자도, 필자도 다 곧 잊어버리겠지만, 그 아들은 20년 감옥 생활 하면서, 어머니를 살해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회한을 갖고 살아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더욱 그렇다. 죽은 어머니와 살아있는 아들 모두의 비극이다. ‘도망가라’는 그 어머니의 외침만은 한동안 필자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 거듭 진심으로 그 어머니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또 한분의 어머니가 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나이에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이 그 분이다. 24일 이 어머니는 숨진 아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아들들이 유사한 사고로 죽게 된다면, 국회를 찾아 이른바 ‘김용균법’이라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다녔다. 김미숙님은 아들의 죽음을 팔자소편이라든가 사고사니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 ‘아들을 죽게 한 환경, 그러한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며,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어머니는 투사로 변신할 모양이다.

본인보다 아들이 먼저 죽은 마당에 살아있는 어머니가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에 저희도 같이 죽었다”는 김미숙님의 비통에 100프로 공감한다. 이제 마음의 평정은 없다. 다시는 이러한 억울함이 없도록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할 투쟁만이 있을 뿐일 게다. 아들이 죽은 후 현장을 찾은 그 어머니는 ‘사고’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낳은 ‘사고의 양상’에 절규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책임 전가와 대책마련 부진은 예나 제나 다름없다. 그 점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나 국회사 청와대 모두 다 똑 같다.

김미숙님은 살아있지만 본인도 죽을 각오로 우리 사회 도처에서 신음하고 있는 ‘김용균들’을 살리고자 동분서주할 모양이다. 연 1천명의 산재사망으로 OECD 국가 중 일터가 가장 위험한 나라인데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표류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제2의, 제3의 김용균이 나타날지 모르는 이 나라를 바꾸는 데 우리 모두 어떻게든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기고

들에 불을 놓다

2019. 3. 8. 제주들불축제에 다녀와서



김현경
주민자치위원회 기획분과위원

들불축제가 열리는 새별오름이 다가오자 도로변에 길게 늘어선 깃발들이 바람에 저항하며 거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깃발에서 느껴지는 묘한 흥분과 설렘으로 처음 찾은 들불축제 현장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주차장도 넓게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길에까지 차들을 세운다니 큰 행사임에는 분명한가보다. 야외 간이 화장실은 많은 진화를 한 듯하다. 마치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공중 화장실 같은 느낌이었다.

나무들을 쌓아 올린 무더기를 보았는데, 그것을 달집이라 부른다고 했다. 달집이 무엇인지 찾아보니 음력 정월 보름날 달맞이를 할 때, 불을 붙여 밝게 하기 위하여 나무와 짚 따위를 묶어서 집채처럼 쌓아 만든 덩어리라고 한다. 들불축제의 기원은 화전민들이 들에 불을 놓아 농사를 짓는 화입이었는데 이제는 화전민도 없고, 말과 소에 먹일 풀 때문에 불을 놓는 농민도 없지만, 축제로 승화시킨 것이 제주들불축제인 것이다.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는 9일 밤 불을 놓을 때라



고 했다. 우리 등은 8일 오전에 동 직원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름 태우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스 내에서 동장님과 직원 분들이 내 집 잔치인 것처럼 부지런히 즐겁게 일을 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 년 제주에서 치러지는 이런 저런 축제들을 큰 장소에 한꺼번에 모아놓은 느낌의 축제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불을 놓을 때 화약을 사용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한 번에 불길이 확 일어나는 장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매년 새별오름이 시름을 앓고 있다가 결국 죽은 오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정월대보름에 하던 불 놓기가 관광의 목적으로 장소와 시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제주의 소중한 유산인 오름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들불을 억지로 놓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들불축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냥 해오던 일이기에 하는 게 아니라면 자연과 공생하는 축제로 거듭나는 들불축제를 기대해본다.

관내학교 이모저모

인화초등학교

인화초, 두근두근 설레는 1학년 첫걸음(입학식) 실시



인화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3월 4일(월) 본교 꿈나무관에서 2019학년도 입학식을 실시하였다. 부윤숙 교무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입학식은 교감선생님께서 내빈 및 선생님을 소개하였고, 학교장 축하인사, 신입생·재학생 인사나누기, 인화 윈드 오케스트라 연주의 축하공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각 교실로 입실하여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고 1년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자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어서 학부모님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님께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으며, 학부모님들의 궁금한 점에 답하는 시간을 끝으로 1학년 입학식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오늘 입학식을 한 208명의 학생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길 기대해본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인화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급별 새 학년 학부모교실 실시



인화초등학교(교장 송만선)는 3월 13일(수) 오후 2시부터 본교 꿈나무관에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2019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실시하고 끝난 뒤 오후 3시부터는 학급별 새 학년 학부모교실 및 학부모회의를 실시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서는 교직원 소개와 학교장 인사에 이어 2019학년도 전반적인 학교 경영계획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진행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자살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 각 교실에서는 학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과 첫 만남으로 새 학년 학부모교실 연수도 실시되었다. 새 학년 학부모 교실에서는 학년·학급별 교육과정 및 학급경영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담임교사와 학부모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 새 학년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희망찬 2019학년도 행복 교육을 기대해본다.

동광초등학교

새로운 출발! 2019학년도 1학년 입학식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2019년 3월 4일(월) 10시 30분에 꿈별관에서 신입생 211명(남 109명, 여 102명)의 입학식 가졌다. 학교에 첫걸음을 내딛은 1학년 신입생들은 밝고 의젓한 모습으로 입학식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재학생들을 대표하여 전교어린이 회장으로부터 환영의 편지를 듣고 6학년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화분을 건네주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입학식이 끝난 후 각 교실에서는 1학년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신입생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았다. 앞으로 1학년 어린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기대해본다.

동광초,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교 사랑 키워...



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제26회 개교기념일(2019년 3월 26일)을 맞아 3월 25일(월)에 개교기념 행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생일을 맞아 각 교실에서는 우리학교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다. 개교기념 행사에서 학생들은 '우리 학교' 4글자 디자인하기, 학교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림 글자 나타내기, 즐거운 학교생활 그리기, 우리 학교 캐릭터 그리기, 학교 풍경 그리기 등의 분야에서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뽐내었다. '사랑과 꿈이 있는 즐거운 학교'를 키우는 동광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사랑 주간에 개교기념 행사에 참가하며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꿈을 가을 하늘 만큼이나 푸르게 펼쳐 나가고 있다.

일도초등학교

일도초, 2019학년도 희망의 시업식 및 입학식 실시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는 3월 4일(월) 오전 9시에 시업식을 개최하였다. 시업식에서는 '바른 품성으로 꿈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함께 해 나가자'는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의 다짐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전 10시에는 다목적실에서 신입생 30명 학생들의 입학식이 개최되었다. 식전에 재학생들의 바이올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교장선생님의 입학선언이 있었다. 특히 1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열두달 나무 아이'란 동화책을 신입생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긴장감을 줄이고 자신감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6학년 재학생들은 환영의 인사와 함께 '사랑의 화분' 선물을 전달하고 교실에서는 담임선생님이 학교생활 안내를 친절히 하여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였다. 학교에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한다.

일도초, 2019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총회, 새학년 학부모교실



일도초등학교(교장 이정미)에서는 3월 18일(화) 오후 6시부터 30여명의 학부모와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도서관 및 각 학년 교실에서 2019학년도 학부모총회, 학교교육과정설명회 및 새학년학부모교실을 실시하였다. 학부모회 총회에서는 2019학년도 학교교육활동을 함께 할 학부모회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사업 계획을 협의하였다.



강창근

일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자생단체 - 일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도2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공공의 힘만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 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지역 복지문제 해결,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공공단체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과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호하고 자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우리동의 복지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로 동

민의 복지체감을 높이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홀몸어르신들의 건강 체크하기 및 말벗 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물품(서비스) 연계 등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37개 업체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 협약업체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자생단체 및 봉사자와 협약 체결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이·미용 봉사활동, 홀몸 노인을 위한 발마사지 봉사 및 민요공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동의 복지사업으로는 희망나눔, 업체 협약체결사업과 모다들영 출레 맹글앙 취약가구 밀반

찬 및 김장김치 지원, 독거노인 및 중·장년 혼자사는 1인가구 안부전화 서비스사업,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삼촌 돌보미 사업과 관내 경로당 재능기부 사업 등을 계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동민 모두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으며,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동민여러분! 우리 모두 이웃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희망찬 내일을 맞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다들영 출레 맹글앙 취약가구 밀반찬 전달



신산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문화공연



취약가구에 김장만들기 전달

기고

인감도장 잃어버리셨나요?



양윤주

일도2동주민센터 민원팀장

“인감도장을 잃어버려서 인감도장 변경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인감 변경은 저희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안 되고 선생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급한데...인감증명서 지금 제출해야 되는데...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갈 수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안되요?”

“그럼,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발급해드릴까요?”

“그게 뭔데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일도2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인감은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인감도장 제작비용이 든다. 도장 보관장소를 몰라 온 집안을 뒤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 발

생하여 법적 분쟁의 우려가 있다.

이런 ‘인감증명서’의 불편해소와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진 등록하는 절차 없이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출하고 도장 대신 현장에서 서명한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로써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최초 1회 승인만 받으면 인터넷(정부24)에 접속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아직까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만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 7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인감 대비 발급률이 7%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아직도 공공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 차량등록 등 수요기관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만 요구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도2동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수요기관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본인서명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용에 각 수요기관 및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은 보내고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Bye 인감, Hi 서명!



문화에 빠지다

지금은 작가와 관객이 따로없는 생활문화의 시대이다. 시민의 문화 향유가 높아야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일도이동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있어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다. 바쁜 일상에 찌뭇뭇 시간을 내어 내 마음의 창을 채워볼 만하다.

문화예술진흥원

제48회 제주소목회전

• 일시 : 2019. 04. 06. ~ 04. 11.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아름다운 “섬”전

• 일시 : 2019. 04. 13. ~ 04. 18.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제주의 봄 콘서트

• 일시 : 2019. 04. 20. 19:00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대극장 • 문의 : 010-9533-6273

한라일보 창간기념 한라 백두 그림 사진전

• 일시 : 2019. 04. 20. ~ 04. 25.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1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제18회 섬에서 부는 바람 사진전

• 일시 : 2019. 04. 27. ~ 05. 02. • 관람료 : 무료
• 장소 : 문화예술진흥원 제2전시실 • 문의 : 064-710-7633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제주시)

• 일시 : 2019. 04.10. ~ 10.16. • 신청 : 2019. 03.04 ~ 04.08.
• 대상 : 제주도민 및 공무원 • 문의 : 064-710-7698

매듭으로 동백꽃 만들기

• 일시 : 2019. 04.13. • 신청 : 2019. 03.20 ~ 04.12.
• 대상 : 초등학생 20명 (여학생 보호자 포함) • 문의 : 064-710-7698

[세시풍속 및 박물관 체험행사] 어린이날

• 일시 : 2019. 05.5.
• 대상 : 관람객 • 문의 : 064-710-7698

[창의아 나랑 놀자] 천연염색 손수건을 만들어요

• 일시 : 2019. 05.11. • 신청 : 2019. 04. 22 ~ 05. 10.
• 대상 : 초등학생 20명 (여학생 보호자 포함) • 문의 : 064-710-7698

[세시풍속 및 박물관 체험행사] 부처님 오신날

• 일시 : 2019. 05.12.
• 대상 : 관람객 • 문의 : 064-710-7698

기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



김희정

주민자치위원의 교육분과간사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우리동에 살고 계신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주민자치 계시대의 현수막을 보고 지나쳤을 것이다.

나 역시 예전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일인 듯 무심히 지나쳐 왔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라졌다.

내가 살아가는 지역에 관심을 가져보자 시작한 일이 주민자치 위원이 되고, 주민자치 분과활동으로 교육분과 위원님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의논하고 계획하면서, 어떤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될지 마음속으로 하루 하루 모집날짜를 기다리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나와 별개의 일인 듯 무심히 지나쳐 왔겠지만 누군가에게 손꼽아 기다려왔다는 것을 프로그램 접수를 받으면서 느끼게 되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나 우울증 있어서 꼭 이겨 해야되어~”

“우리 친구니깐 꼭 붙여줘이~~”

팔만한 나를 붙잡고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순수함을 보면서, 난..과연 뭐지...조금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나도 저분들 나이가 되면 저런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일생동안 배움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배움에 대한 흥분이 젊음과 늙음을 구별한다.

배우고 있는 한 당신은 늙지 않는다”

는 미국의 물리학자 로절린 알로우의 말이 있다.

무언가에 대한 배움을 갈구한다는 것,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말인 듯 하다.

무엇을 배우고자 한다면 양파뿌리처럼 계속해서 배울것이 생겨난다고 한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며,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기도해본다.



주민자치위원회 생 / 생 / 중 / 계 / 실



2019. 3. 29.(금) 새봄맞이 대청결운동



2019. 3. 29.(금) 신산경로당 점심봉사



2019. 3. 14.(목) 3월 정례회의



2019. 3. 12.(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2019. 3. 8.(금) 들불축제 참가



2019. 3. 5.(화) 동성·돌하르방길 걷기



2019. 3. 4.(월) 화성시 주민자치위원 협의회 간담회

사/람/과/사/람/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두경, 동장 부태진)에서는 2019. 3. 5.(화) 10시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도의원,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 강사,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한 2019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하였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18개 강좌 410명이 참여하여 6월30일까지 운영된다.

일도2동 통장협의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일도2동 통장협의회(회장 고광언)에서는 2019. 3. 8.(금) 17시에 통장 48명이 참여하여 인제사거리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환경·교통·도로」 3개 분야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클린하우스 불법쓰레기 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



일도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문동진)와 합동으로 관내 클린하우스 6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쓰레기 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실시하였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집중 단속 및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계도하였다.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 들불축제장 식사 봉사활동 등 실시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은희)는 2019.2.18.(목) 장애인 인권포럼에서 떡국나눔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19.3.8.(금)에는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에서 식사 봉사활동을 하였다.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 기초질서 지키기 노상 적치물 정비



바르게살기운동일도2동위원회(위원장 강찬중)에서는 2019. 3. 21.(목)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일원에서 불법 노상 적치물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일도2동 방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일도2동방위협의회(회장 박경호)는 2019. 2. 22.(금)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해 결산 승인 및 감사보고, 2019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 하였다.

일도2동연합청년회 제2차 이사회 개최



일도2동 연합청년회(회장 진두선)는 2019. 2. 20. (수) 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들불축제 행사참여 계획, 동민 어울림 문화 페스티벌 개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 신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전개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한관섭)는 2019. 3. 5.(화) 고마로 일대에서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점점 캠페인'을 펼쳤다.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밀반찬 도시락 전달



일도2동 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이승훈)는 2019. 2. 28. (목) 회원 15여명이 모인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15가구를 방문하여 이불과 밀반찬을 전달하였다.

일도2동 민속보존회, 제주들불축제 풍물대행진 참여



일도2동 민속보존회(회장 조창운)에서는 개막 2일째인 2019. 3. 8.(금) 18시부터 제22회 제주들불축제 「전도 화합·소통 풍물대행진」에 참여하여 35개 읍면동 민속보존회 및 풍물패들과 함께 풍물 대행진을 함께 열었다.

일도2동 지역자율방재단, 기초질서지키기 도로 사유화(노상적치물·노점상) 민·관 합동 단속 실시



일도2동지역자율방재단(단장 오영진)에서는 2019. 3. 18(월) 단체 회원 및 주민센터 직원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질서지키기 도로 사유화(노상적치물·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다.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다들영 출래 맹글앙 취약가구 밀반찬 지원사업'추진



일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창근)에서는 두맹이복지회관에서 위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다들영 출래 맹글앙 취약가구 밀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일자리 분야

○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 대 상 : 도내 거주 만19세~34세 청년 20여명
- 내 용 : 실제 업무체험 및 직무교육 실시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확대

- 대 상 : 도내 주민등록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휴학 중인 자 또는 졸업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 내 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대 상 :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내 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추가 적립

◆ 복지·여성·보건 분야

○ 1급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 대 상 : 1급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내 용 : 1인 월 30,000원 (월 20,000원 → 30,000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규)

- 대 상 : ① 종일돌봄이 필요한 최종증 성인발달 장애인
②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 내 용 : 주간활동서비스지원 : 38명, 방과후 돌봄서비스 : 58명

○ 장애인연금 지원

- 대 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기준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내 용 : 기초급여 : ('18.9월~'19.3월) 250,000원
부가급여 : ('18.9월~'19.3월) 20,000~330,000원 차등 지급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대 상 :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 내 용 : 고용 장애인 1인 / 월 35만원~65만원

○ 양지공원 개장유골 화장예약기간 및 기수 확대 운영

- 대 상 : 개장유골 화장 인터넷예약 접수기간 확대 운영 (15일→1개월)
- 내 용 : 2019.4.1.부터 개장유골 일일 예약 가능 기수 평일 30기→60기로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대 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내 용 :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 지원 (신규)

- 대 상 : 입양신고일 현재 제주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내 용 : 1인1회 일반아동 5백만원, 장애아동 7백만원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 대 상 :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 내 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대 상 :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개소
- 내 용 : 위생등급지원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위생용품 지원, 지정업소 도 홈페이지 게시, 컨설팅 등 기술지원 등

○ 식품접객업소 내 포충기 설치비 지원

- 대 상 : 식품접객업소 1,370개소
- 내 용 : 포충기 설치비용의 50%지원 (110,000원 이내)

○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

- 대 상 : 유·초·중·고 전학생 (311개교, 86,737명)
- 내 용 : (도)식품비·운영비 60%, (교육청) 인건비 40% 부담

○ 아동수당 확대지원

- 대 상 :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 내 용 : 월 10만원 지급 (*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 예정)

◆ 자치행정 분야

○ 365일·24시간 연중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가능

- 대 상 :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장애인 접근성이 강화된 최신행 기기 구입 및 재배치
- 내 용 : 민원실 앞 개방된 공간 설치

○ 4·3생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 대 상 : 생존희생자 130명, 유족 79,427명
- 내 용 : (제주항공)희생자 50%, 유족 30% 항공료감면, (도내 공공기관 주차장) 희생자 및 유족 50% 감면, (관람료·입장료) 희생자 및 유족 무료, (공연비) 공연사별 자체 감면

◆ 농축산 분야

○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

- 대 상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 설정 농약 이외에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 내 용 : 미등록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100만원이하, 농약판매상은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및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조치

○ 농기계 종합보험료 신규 지원

- 대 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 내 용 : 농가부담 보험료 50% 중도비에서 35% 지원

○ 식용란 난각 산란 일자 표시 및 가정용 계란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대 상 : 식용란 난각 표시사항 확대
→ 생산자 고유번호(4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산란일자표기(4자리)
※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되며, 식용란 선별 및 포장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구비 의무화

◆ 환경보전 분야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LPG 1톤트럭 구매하면 400만원 추가 지원

- 대 상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면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소유자
- 내 용 : 400만원 정액지원

○ 소형폐가전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 배출 가능

- 대 상 : 5개이상 모아야 무상 수거 가능했던 소형 폐가전을 수량에 상관없이 도내(도서지역 제외)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 배출

○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 대 상 : 도민 및 도내 기업
- 내 용 : 전기차 구매보조금 1,400만원 이내,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 운영

- 내 용 : 한라산 정상(백록담) 구간(성판악, 관음사지구 탐방로) 예약
※ 2019년 10월 시범운영, 2020년1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주거·교통 분야

○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내 용 :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물가상승률, 유지관리 비용 등 고려)
· 노상·노외주차 (최초 30분) 500원→(최초 30분 초과) 1,000원, (15분 초과) 250원~300원 → 500원
· 1일 노외주차 : 5,000원~6,000원 → 8,000원~10,000원

◆ 문화체육 분야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6세이상)
- 내 용 : 1인당 8만원 ('18년도 대비 1만원 상승)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급

- 대 상 : 도내300명(저소득층 장애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일부)
- 내 용 : 1인당 8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타

○ 소방 관계 법령

- 중,소 규모 병원(30병실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 모든 의료시설 및 11층 이상 아파트로 방염 대상 범위 확대
- 건축물 소방시설 시공시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 범위 확대
- 주유취급소 부지내 이동탱크저장소 용량 확대

들꽃

사진/고재민



노루귀

이른 봄 숲속에서 잎이 말려서 나올 때 털이 돋는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노루귀라고 한다.

3~4월에 피는 꽃은 흰색 또는 옅은 홍색으로 긴 꽃대 위에 1개씩 달린다.

좀현호색

제주도와 중부지역 산록에서 자라는 좀현호색은 입술 모양의 꽃이 모여 피는 다년초이다.

4~5월에 피는 꽃은 홍자색 또는 파란색이고 원줄기 끝에 총상꽃차례로 달린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도

“작은 편의보다는
기초질서를 지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모두의 도시 프로젝트

기본

기본은
모든 사람이
기초와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쓰레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자원입니다.

올바른 주·정차는 이웃 간의 배려입니다.

도로는 사유지가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쓰레기
일회용품 안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하기



주차
주변 주차장 이용,
갈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 하기



도로
상가 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적치 안 하기



불법 노상 적치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상가 또는 집 앞 도로는 개인소유가 아닌 공공의 도로

중
점
정
비
사
항

- 도로나 보도 위 물건 진열행위, 도로변 좌판 진열행위
- 도로변 물통·화분·페타이어, 각종 잡채를 적치행위
- ⇒ 통행불편 장애요인 및 미관저해 요소

단
속
관
련
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도로에 토석, 임목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만들기 위해
제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Jeju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주차질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단속기간 : 연중
- ② 단속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지대
- ③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 ~ 제3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 ④ 과 태 료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⑤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 (728-7355~8)

올바른 주차문화를 위한 준수사항

- ※자동차는 반드시 주차가능 지역에 주차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 ※도로위 역 주차, 이중주차, 하거나 모퉁이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 ※보도 위 주·정차 절대 금지입니다.
- ※장애물 전방 주차구역에 비장애 차량을 주차 하지 않습니다.
-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근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 합니다.

